

# 중기부 강소기업 100곳 키운다

### 5년간 30개 사업에 최대 182억 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일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곳을 연내 선정한다.

9일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소

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요건으로는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박영선 장관

5,000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 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이중 R&D 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연구 전담 요원 2명 이상 ▲총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 이상, ▲벤처펀드 등의 투자 자료부터

기술 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 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후보 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15명 내외로 구성된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 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중기부는 30개 사업에 최대 182억 원

을 지원한다. 30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R&D 19개, 비R&D 8개, 펀드 1개, 전용 자금 2개 등이다. 지정 이후 5년간 기술 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엄격한 관리로 성과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모니터링 및 매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선정 후 3년 차 중간 평가, 5년 차에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중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연도에 현장심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를 재점검한다.

중기부는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강소기업에서 졸업시키고 신규로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 롯데마트 '통큰 김치통' 선봬

롯데마트는 김장철을 앞두고 7.5l 짜리 국산 스테인리스 김치통을 1만9,900원에 파는 '통큰 김치통'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통큰 김치통'이 오프라인 정상 판매 상품보다 50%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 김치통은 시중에 팔리는 대부분의 김치냉장고에 수납이 가능하고, 배추 3~4포기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크기다.

이 제품은 롯데마트가 이달 진행하는 대형 할인행사 '통큰 한달'을 맞아 내놓는 첫 번째 기획 상품이다.

### 하이트진로, 베트남 대학 후원

하이트진로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2019년 한글날 축제'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이달 3일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뒤 하노이 국립 외국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기업 CEO 특강을 진행했다.

하노이 국립 외대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어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학과생만 700여명에 달한다.

한글날 축제는 매년 10월 한글날을 맞아 베트남 북부와 중부 한국어 관련 13개 교육대학 3,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다.

지난해 베트남 소주 판매량은 22만 상자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46%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LH '도시투어 프로그램'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사업지구를 돌아보는 '도시투어'를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이번 도시투어 프로그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정책의 핵심 수요층인 대학생, 신혼부부와 LH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차당 50명씩 총 400명 규모로 시행된다.

대상지는 수도권 남부(판교, 동탄)·서부(김포한강, 청라) 및 세종시이며, 사업지구 설명과 지구별 주거·환경·교통요소 투어, 토크콘서트 등으로 이뤄진다.

LH는 이번 도시투어 프로그램으로 얻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3기 신도시의 지향점인 '신혼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편히 일할 수 있는 자족도시' 건설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lhtour.co.kr)를 참고하면 된다.

## 못 받은 통행료 3년간 100억

### 민자도로센터에 강제징수권 부여...예금압류 나서

정부와 민간자본(이하 민자) 고속도로 운영 법인들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국도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10일 '미납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연장 길이는 총 769.6km로, 2018년 기준 전체 고속도로(4,767km)의 16.1%나 차지한다. 하지만 18개 법인이 노선별로 개별 운영하기 때문에 미납 통행료 관리도 따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승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이른다.

지난 1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권을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간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권을 민자도로센터에 재(再)위탁함으로써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력거래소는 최근 나주시청, 전남대학교, ㈜지혜와 비전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시설 에너지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력거래소 제공

## 전력거래소, 지역사회 에너지복지 활성화 협약

### 나주시역 에너지 빈곤층 건물 에너지 개선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최근 나주시청, 전남대학교, ㈜지혜와 비전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시설 에너지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될 '나주시

경로당 에너지복지지원 프로그램'은 나주시에서 선정한 에너지 빈곤층 건물을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이 산학협력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진단을 하게 된다.

이에 따른 개선조치 과정에서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정년일자리 창출 노력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내년에는 이러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참여기관과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동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 "이자비용 감당 못해"... '좀비기업' 10% 달해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분석

건설업체 가운데 그해에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일명 '좀비기업'이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외부감사 대상 건설업체 1,83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어 이자상환이 여의치 않은 기업이 28%(514개)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23.8%보다 4.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이 3년 연속 지속된 한계기업(좀비기업)은 3년 연속 경영실적을 제출한 1,433개 업체 가운데 146개사로, 분석 대상의 10.4%에 달했다. 2017년 기준 한계기업 비중(9.2%)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부실업체를 뜻한다.

이들 한계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에 달해 대형기업보다 경영 사정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저금리 시대 수익 내는 '인컴펀드' 인기

저금리 시대에 이자, 배당, 임대수익 등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컴(Income) 자산에 펀드 투자가 붐리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에서 운용 중인 인컴 펀드 106개의 설정액은 총 3조136억원으로 연초 이후 1조4,609억원이 순유입됐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4,127억원이 빠져나가고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2조6,363억원이 순유출된 점에 비춰보면 한층 더 돋보이는 자금 흐름이다.

특히 하나UBS자산운용이 작년 1월 출시한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투자신탁(H)'에는 연초 이후 1조1,156억원의 모퉁돈이 들어왔다.

인컴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9.14%로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1.90%)을 크게 웃돌았다.

상품별로 보면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w'(17.60%), 'KBPIMCO글로벌인컴셀렉트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A'(15.13%), '삼성누버거버넌스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_A'(14.60%) 등이 이 기간 10%를 넘는 고수익을 올렸다.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